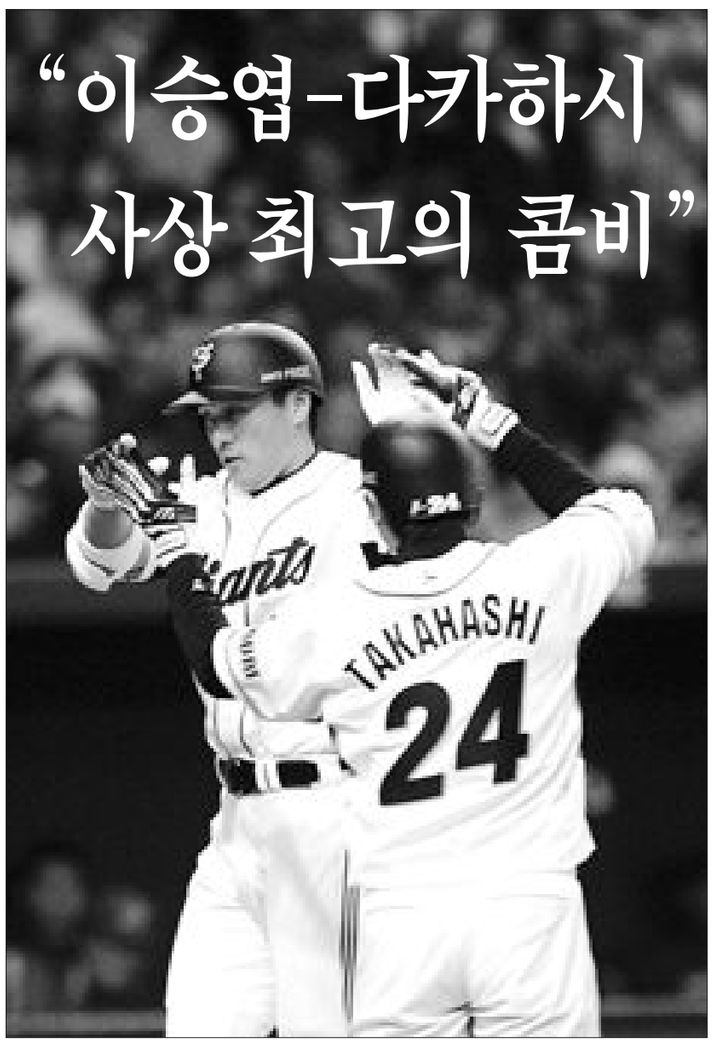
"이승엽-다카하시 사상 최고의 콤비"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이 지난 2일 도쿄돔에서 열린 요코하마와의 3차전 7회말에 2호 홈런을 작렬한 뒤 홈인하며 동료 다카하시로 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日 언론 극찬…최강 타선 'LT포' 애칭도

2일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전에서 랑데부 홈런으로 팀 승리를 이끈 이승엽(30)과 다카하시 요시노부(31·이상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사상 최고 콤비'라며 벌써부터 일본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다.

요미우리 계열 스포츠전문지인 '스포츠호치'는 3일 인터넷판에서 '이승엽&다카하시, 사상 최강, 개막 3게임에서 2번째 아베크(연속 타자 홈런)'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산케이스포츠'는 '파괴력 만점! 거인을 승리로 이끄는 최강 아베크탄' 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요코하마와의 개막전에서 각각 대포 한 방씩을 터뜨렸던 이승엽과 다카하시는 약속이나 한 듯 2일 또한 차례씩 불을 뿜어내며 2001년 이후 팀에 5년만의 개막 3연전 승리(2승1패 이상)를 안겼다.

특히 '스포츠닛폰'은 벌써부터 이들 듀오의 영문 이니셜을 따 'LT'포라는 애칭을 선사하며 최강 타선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요미우리는 오사다하루(王貞治) 소프트뱅크 호크스 감독과 현재 종신 명예감독인 나가시마 시게오와 이 현역에서 활약하던 시절 공포의 'ON'타선으로 일본시리즈 9연패의 신화를 이룬 적이 있어 좌타 듀오로 이뤄진 새로운 LT 타선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스포츠닛폰'은 또 이승엽의 엄청난 파워에 관심을 보이며 적어도 힘에 있어서는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뉴욕 양키스)를 능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승엽에게 프리배팅 때 배팅볼을 던져 준 투수 기타노 아키히토는 "오랜만에 마쓰이를 상대로 던졌을 때가 생각났다. 파워만 본다면 마쓰이보다 이승엽이 나을 지도 모른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산케이스포츠'는 상대 1루수가 공을 숨기는 바람에 어이 없이 아웃되며 일본 특유의 '잔꾀야구'를 톡톡히 겪은 이승엽이 7회 좌중월 솔로포로 '보복'에 성공했다면서 이승엽의 가세로 요미우리 타선은 파괴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분석했다.

KIA 투수력 'V10' 열쇠

❶ 8개 구단별 전력 분석
❷ 떠오르는 선수는 누구
❸ 예상되는 각종 기록들
❹ 야구야 놀자…시즌개막

"누구도 우승을 장담할 수 없다"

오는 8일 막이 오르는 올 시즌 프로야구는 8개 구단의 전력 평준화로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일단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팀 삼성과 전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한화, 시범경기 1위 돌풍의 LG가 상위권 후보다.

여기에 지난해 4강 진출팀 SK와 올 시즌 화려한 선발진이 돋보이는 두산, '영원한 야구 명가' KIA도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 미리 보는 2006 프로야구

지난해 최하위에서 올 시즌 우승으로 'V10' 달성을 꿈꾸는 KIA는 마운드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김진우-그레이-강철민-한기주 등이 4선발로 낙점 받았지만 이번 시범경기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해 정규시즌에서 '믿을맨'이 될 지 미지수다.

'억대팔' 한기주 활약 기대

특히 '황금팔' 한기주의 프로무대 적응 여부가 올 시즌 'V10' 달성의 열쇠다.

서정환 감독도 한기주에 대해 "스트라이크존에 적응이 안된 것 같다. 아마추어 때는 스트라이크인 바깥쪽 낮은 공을 심판이 안 잡아줘서 당황해 하는 것 같다" 며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좌투수 품귀현상도 아킬레스건이다.

좌완 전병두가 버티고 있지만 선발진부터 마무리 장문석까지 모두 우투수다. 중간계투도 정원과 이상화, 조태수가 모두 오른손 잡이다.

'용병' 서브넥과 '부상병' 홍세완이 가세한 팀 타선은 위력적이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스타군단' 삼성은 투·타의 조화를 앞세워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제패를 꿈꾸고 있다. 마운드는 팀 하리칼라, 제이미 브라운, 배영수 등으로 짜여진 선발진에 '철벽 소방수' 오승환이 뒷문을 막고 있어 든든하다.

타선은 지난해 11월 어깨수술을 받은 '주포' 심정수가 복귀했고 양준혁, 조동찬, 박한이 등이 있어 무게감이 느껴진다.

WBC를 통해 세계적 명장 반열에 오른 김인식 감독이 버티고 있는 한화도 올 시즌 우승 다크호스다.

'특급 좌완' 구대성(전 뉴욕 메츠)의 복귀가 가장 믿는 구석이다.

지난해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던 내야 수비도 FA 시장에서 영입한 유격수 김민재와 LG에서 데려온 용병 2루수 루 클리어로 메웠다.

삼성·한화·LG 3강 예상

LG는 크게 내세울 에이스는 없지만 좌완 대졸신인 김기표와 빈볼 투수에서 환골탈태한 서승화의 활약이 기대된다.

타선에선 이적생 마해영과 시범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박씨 3총사' 박병호, 박기남, 박경수 등이 버티고 있다.

이와함께 호세와 브라이언 마이로우 등 용병 타자 2명을 보유한 롯데와 박명환, 맷 랜들, 다니엘 리오스 등 화려한 선발진을 갖춘 두산도 4강행 티켓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독일 분데스리가! 오랜만이군 3일(한국시간)열린 독일 분데스리가 28차전에서 샬케 04의 브라질 출신 포워드 링콘이 함부르크의 골문을 향해 프리킥을 날리고 있다.

필 미켈슨 2연패 나상욱 공동 34위

PGA 벨사우스클래식 최종

왼손잡이 필 미켈슨(미국)이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벨사우스클래식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나흘 뒤 열리는 메이저대회 마스터스를 향한 준비를 마쳤다.

미켈슨은 3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덜루스TPC 슈가로프코스(파72·7천293야드)에서 열린 4라운드에서 7타를 줄인 합계 28언더파 260타를 쳐 나흘 연속 1위를 질주한 끝에 작년에 이어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우승 상금은 95만4천달러.

미켈슨이 세운 72홀 28언더파의 성적은 PGA 투어 최소타에 1타 모자라는 기록이며 2년 연속이자 세번째 우승 (2000년, 2005년, 2006년)은 이 대회에서 처음 나온 것.

역대 최소타 기록은 조 듀란트(미국)와 팀 헤런(미국)이 5라운드(90홀) 대회인 봅호프클래식에서 각각 2001년과 2003년에 세운 29언더파 259타였다.

호세 마리아 올라사발(스페인)과 잭 존슨(미국)은 미켈슨에 한참 뒤진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한편 한국의 나상욱(22·코오롱)은 5언더파 283타로 공동 34위에 자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4일(화)

▲메이저리그〈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07 : 55·Xports), 〈뉴욕 Y-오클랜드〉(11 : 00·Xports)

▲험멜코리아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숭실대-배재대〉(14 : 00·KBS SKY S-PORTS)

▲세계 대학태권도선수권 대표 선발전(14 : 10·KBS1)

▲플레이오프 준준결승 3차전〈KTF-KCC〉(19 : 00·Xports)

5일(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2차전〈AC밀란-리옹〉(03 : 30·MBC ESPN)